



전호근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 맹자의 혁명론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맹자의 혁명론

맹자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할 때, 천하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혁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백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유교적 철학을 정치에 반영하고자 했던 맹자의 혁명론을 살펴보자.

## 학습 목표

- 맹자의 혁명론에서 혁명이 정당하기 위한 조건
- 맹자가 긍정하는 정치 형태
- 맹자의 혁명론이 주장하는 절대적인 가치

## 강사 소개

### • 전호근

동양철학자.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고전 번역, 저술 활동

저서 『공자, 지하철을 타다』(2013),

『번역된 철학 착종된 근대』(2010) 외 다수

강의 보기



- 제목 :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 맹자의 혁명론
- 강사 : 전호근 (동양철학자)
- 구성 : 24분

지식 노트



## 공자(孔子, BC 551~BC 479)

중국 고대의 사상가, 유가의 시조. 최고의 덕을 인(仁)이라고 보고, 그것의 출발점으로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주장하였다.

## 지식 노트



周文王 (? - 前1046) 明人

### 문왕(文王)

주나라 개국의 기초를 닦은 성왕으로, 유가로부터 우왕, 탕왕과 함께 이상적인 성왕의 모델로 숭앙받았다.

지식 노트



**맹자(孟子, B.C.372~B.C.289)**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로,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 유교를 후세에 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 강의 노트

### 君君臣臣 父父子子

공자의 명분론.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비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

### 『대학』(大學)

사서오경의 하나인 유교 경전으로, 경(經)과 전(傳)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沒世不忘(몰세불망)

(문왕이) 세상에서 사라진 뒤에도 잊지 못한다.

- 『대학』 중에서

### 前王不忘(전왕불망)

앞 시대의 왕을 잊지 못한다. - 『대학』 중에서

### 齊宣王 問曰(제선왕 문왈)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 湯放桀(탕방걸)

탕임금은 걸왕을 쳐부수었고

## 武王伐紂(무왕벌주)

무왕은 주왕을 쳤다고 합니다.

## 有諸(유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孟子對曰 於傳 有之(맹자대왈 어전 유지)

맹자가 대답하기를,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 曰臣弑其君 可乎(왈신시기군 가호)

선왕이 묻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해하는 것이 옳은가?

曰臣弑其君에서 弑(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살해하는 시해(弑害)의 의미로 쓰였다.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 권력자들에게 절대적 가치로 여겨졌다.

### 曰賊仁者 謂之賊(알적인자 위지적)

맹자가 말하기를, 인을 해친 자를 적이라 일컫고

### 賊義者 謂之殘(적의자 위지잔)

의를 해친 자를 잔(잔인한 자)이라 일컫는다.

### 殘賊之人 謂之一夫 (잔적지인 위지일부)

잔적인 사람을 일부(=필부)라 부르니,

###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문주일부주의 미문시군야)

일부를 죽였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다.

\*誅(벨 주): 죽이다, 베다

맹자의 주장에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다면 임금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맹자는 공자의 명분론을 응용해서 혁명을 정당화했다.

맹자에 따르면 왕권 교체의 정당성은 걸왕과 주왕이 군주다웠냐는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맹자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 혁명이 정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맹자가 내린 결론의 바탕에는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는 공자의 정명론의 논리가 깔려 있다.

혁명인가 찬탈인가?

교체 주도 세력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질 때, 교체가 천하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면 혁명이 되지만 임금의 자리를 뺏기 위한 것이었으면 찬탈이 된다.

주희가 풀이한 『맹자』 - 『맹자집주』(孟子集註)

**書曰 獨夫紂(서왈 독부주)**

서경에서는 주왕을 독부라고 보았다.

\*獨夫(독부): 한 사람의 외로운 지아비

**蓋四海歸之 則爲天子(개사해귀지 즉위천자)**

사해의 만백성들이 그를 따르면 그는 곧 천자이고

**天下叛之 則爲獨夫(천하반지 즉위독부)**

천하의 모든 백성이 그를 떠나면 그는 곧 독부다.

맹자는 군주의 인품의 기준을 민심의 향배로 보았다.

실제 백성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공자나 맹자는 백성의 가치를 끌어내었다.

**所以深警齊王 垂戒後世也(소이심경제왕 수계후세야)**

그러니 제나라 왕을 깊이 경계하여, 후세에 경계를 남긴 것이다.

맹자는 혁명 자체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혁명이 후세 왕에게 경계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 평가한다.

맹자는 혁명의 정당성을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다.

### 왕면(王勉)

송나라 학자. 주희의 『맹자집주』(孟子集註)에 그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 王勉曰 斯言也(왕면왈 사언야)

왕면이 말하길, 맹자의 이 말은

**惟在下者有湯武之仁 而在上者有桀紂之暴 則可  
(유재하자유탉무지인 이재상자유걸주지포 즉가)**

아랫사람이 탕임금이나 무왕처럼 이미 인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관찰지만,

**不然 是未免於篡弑之罪也(불연 시미면어찬시지죄야)**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찬탈이나 시해의 죄를 피할 수 없다.

왕면의 말에는 어질지 못한 사람은 군주의 과실을 지적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맹자의 혁명론은 현재 군주가 폭군이라면 혁명을 일으켜도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나라가 노나라와 전쟁을 치렀다. 추나라 목공이 이렇게 말했다. 나의 신하로 관직에 있는 자들은 33명이나 죽었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죽이자니 이루 다 죽일 수 없고, 수가 많아서 죽일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윗사람이 죽는 것을 통째 시 하여 구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던 시절에 임금님이 백성 중에서 늙고 약한 이들은 굶어 죽어 그 시체가 도랑이나 구덩이에 뒹굴고 장성한 이들은 흠어져서 사방으로 간 자가 몇천 명이었는데 임금님의 재물 창고와 곡식 창고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관리들이 그 사실을 임금님께 알리지 않았으니, 이것은 윗사람이 자신의 일을 태만히 하여 아랫사람을 해친 것입니다. 증자께서 이르기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 出乎爾者 反乎爾者也(출어이자 반호이자야)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 보복의 논리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러 보복하게 된 것이니 임금께서는 그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께서서 만약 인정을 베푸신다면 백성들이 윗사람을 친애하여 군장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 民(민) - 居民(거민)

경작지가 있어 나라에 정착해서 사는 백성을 의미

### 氓(맹) - 流氓(유맹)

거주지를 잃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민



氓(맹)은 지킬 가치가 없으니, 전쟁에 나가도 반드시 패배한다.

맹자는 추나라 목공에게 仁政(인정)을 베풀어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말한다.

### 『사기』(史記)

전한시대의 역사가 사마천이 중국 상고 시대의 황제 (黃帝)로부터 사마천이 살았던 당시 한무제에 이르는 근 3천 년을 기록한 통사(通史)

### 사구(司寇)

범법자를 처벌하는 직책

### 한비자(韓非子, B.C. 280~B.C.233)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정치사상가로 법가 사상을 집대성하고 '제왕학'을 확립했다. 이사의 모함 때문에 진시황에게 목숨을 잃는다.

한비는 한이라는 약소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유지되어야 백성들의 삶을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자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전쟁에 나가서 그 사회를 막아야 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자와 달리 한비자는 국가를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

맹자의 왕도주의는 단지 효율적인 착취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民爲貴(민위귀)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 社稷次之(사직차지)

사직은 백성 다음이다.

## 君爲輕(군위경)

군주는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가장 가벼운 존재이다.

##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

→ 국민, 영토, 통치자 순서대로 국가에서 중요한 것이다.

맹자가 주장하는 정치에서는 백성이 절대적 가치이다.

마찬가지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는 국민의 선택에 있다.

국민의 선택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民本(민본)이다.

民主(민주)는 국민에게 선출 권한이 있는 것

맹자가 말하는 국민에게 선출 권한은 없지만, 전쟁에 나갔을 때 싸우지 않는 소극적 저항권은 있다.

맹자의 혁명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백성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이다.

## 학습 요약

- 맹자는 혁명의 대상이 군주답지 못하고 혁명의 근거가 천하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혁명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맹자는 군주가 인정(仁政)을 베풀어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백성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다고 보았다.
- 맹자의 혁명론은 백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긴다.

## 인문 퀴즈

1. 전국시대의 학자인 맹자(孟子, B.C.372~B.C.289)가 주장한 것으로,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인 이 이론은 무엇인가?

- (1) 사회계약론   (2) 민주정치론  
(3) 철인통치론   (4) 역성혁명론

2. 다음 중 A와 B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전국시대의 유학자인 그는 무왕이 주왕을 몰아낸 역사적 사건을 두고, 백성을 등진 군주라면 타도 되어야 마땅하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했다.

B. 남송시대의 유학자인 그는 1천여 년 동안 잊혀진 A의 유가 사상을 재해석하면서 A의 위상을 공자 다음으로 부상시켰다. 또한 급진적인 A의 정치사상을 보다 보편적인 인식으로 확대시켰다.

- (1) 공자 - 주자   (2) 맹자 - 주자  
(3) 맹자 - 한비자   (4) 주자 - 한비자

## 인문 퀴즈

3. 백성을 등진 군주, 인(仁)을 저버린 군주를 무력으로써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맹자의 정치사상인 역성혁명론이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다음 중 맹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1) 맹자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혁명의 근거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혁명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2) 맹자가 주장하는 정치에서는 군주가 절대적인 가치이고 백성은 부차적인 가치이다.
- (3) 맹자는 군주가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백성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다고 보았다.
- (4) 맹자는 군주의 인품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서도 민심을 중요하게 보았다.

**정답**

1. (4) 2.(2) 3.(2)

3. (2) 맹자는 군주가 있기 전에 백성이 먼저 있고, 백성을 등진 군주는 인(仁)을 어긴 군주이며 그는 타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맹자에게 군주는 정치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퍼블릭 도메인

지식노트

- <http://en.wikipedia.org/wiki/File:Konfuzius-1770.jpg>
- 퍼블릭 도메인
- 퍼블릭 도메인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 맹자의 혁명론

강사: 전호근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http://www.artnstudy.com)

ArtnStudy.com